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2009. 3. 2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실

학업성취도평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정진곤입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가르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분수셈을 못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 국어는 물론이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하고,
분수셈을 못하니 인수분해 문제도 풀 수 없었지요.

중학생이 되어도 책을 못읽는 학생들이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비록 공부는 못해도 운동은 잘 하고, 다른 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부진 상태가 누적되어 현대와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에
이런 학생들의 앞날은 암담하기 마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실태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지원대책을 2월 1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수 평가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5천 명(2.4%)정도였고, 중학교 3학년은 6만9천 명(10.4%), 일반계 고등학생은 4만4천 명
(9.0%)이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은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된 시험에서 20점도 맞지 못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오랜 난제를 처음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올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시험관리, 채점, 성적집계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학업능력이
부족한 지역, 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탈락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학업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일생을 바보 아닌 바보로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수위주 교육으로 치닫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점수위주의 교육으로 치닫게 되고, 학교, 지역 그리고
학생들 간의 한 줄 세우기식 경쟁이 조장되며,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잘 못 활용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통령님을 모시고 덕성여중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숙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부진한 데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 가정의 정서적 환경,
지역적인 여건, 학생개인의 의욕, 학습태도 등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교사의 노력만으로 학업능력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들의 실력과 열의가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부진학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그런 선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책임 지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학교와 사회가 합심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할 때 교육개혁은 가능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교육개혁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 3. 2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 정진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한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

1.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란**

– 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간·학생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00년부터 실시

– 대상 : 초6(65만 명), 중3(66만 명), 고1(65만 명) 총 196만 명

– 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결과 공개

※ 학생에게는 4단계(우수,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로 통보, 정부 발표는 3단계(보통이상, 기초, 기초학력미달)로 발표

※ 초 · 중은 지역교육청 단위,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까지 공개

기초학력 미달이란?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 목표 성취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하여 별도의 보정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 **선진국의 학업성취도평가 제도는**

– 주요 국가에서도 매년 전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

구분	대상 학년	평가 방법	대상 과목	평가 방법 등
미국 (NCLB)	3~8학년	매년 전수평가	읽기 수학, 과학	주 정부가 정한 연간적정향상수준(AYP) 도달여부 평가 → 학부모 공개 미도달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과 함께 교장 교체 등 엄격한 제재조치 병행
영국 국가 교육과정평가 (NCA)	2, 6, 9학년	매년 전수평가	국어 수학, 과학	과목별 8단계 성취 수준별 도달 비율 정부 홈페이지에 지역별, 학교별 성취 수준 도달 비율 공개
호주 국가 언어수리평가 (LANNA)	3, 4, 7, 9학년	매년 전수평가	언어, 수리	'07년이전에는 도달/미도달 여부만 파악, '08년부터 다양한 성취수준 공개
일본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평가	초6, 중3학년	매년 전수평가	국어, 수학	국가, 도, 지역별 조사결과 공시 시, 군, 구, 학교별 성적은 교육위의 판단 아래 공표

2. 평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 **우리나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현황은**

– 초6(2.4%, 1만5천 명), 중3 (10.4%, 6만9천 명), 고1 일반계 (9.0%, 4만4천 명)

※ 전문계고 포함 시 고1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15.2%

단위 : %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초6	2.5	2.5	1.7	2.2	3.0	2.4
중3	9.0	11.6	12.9	11.7	6.6	10.4
고1 (일반계)	5.5	11.8	8.9	2.5	6.1	9.0

●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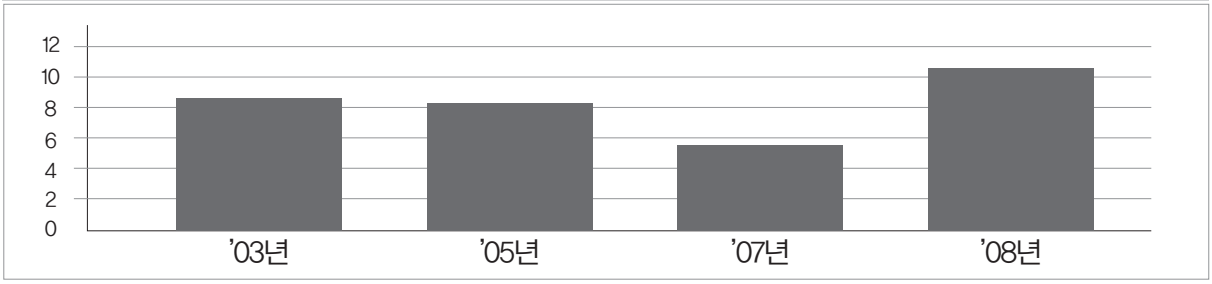
※ 초6 : 2.4% → 중3 : 10.4% → 고1 : 9.0% (전문계고 포함 시 15.2%)

② 과거 표집평가에 의해 감소하던 미달 비율이 전수평가('08년) 결과 대폭 증가

※ 표집평가(중3) 시 개선('03년 8.5%→'07년 5.3%) ⇨ 전수평가 시 2배 증가 ('08년 10.4%)

단위 :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중3)



③ 지역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

※ 중3 영어 기초학력자 비율의 경우, 서울 강남·서초 3.6%에 비해 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북 무주는 25.5%로 7배의 격차를 보임

④ 그러나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도 학교의 노력에 따라 학력 격차 발생

※ 인근 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강남 A중, 강북 C중의 경우 교장의 리더십과 특화된 교육과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단위 :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강남	A중	0.7	0.7	0.7	3.6	0.4
	B중	6.1	6.8	7.8	7.5	2.9
강북	C중	5.0	15.1	5.0	7.6	1.7
	D중	14.9	21.5	19.0	16.1	9.1
서울 평균		11.2	15.5	14.4	15.2	7.9

3. 기초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 **정책의 추진방향은**

– 정부는 선진적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과거 학생(학부모)의 책임으로 방치했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적극 해소 추진

과거	개선 방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학교, 지역 현황 및 문제파악 불가	학업성취도평가로 지역/학교별 교육격차 파악 가능
뚜렷한 정책목표가 없어 일회성, 단기적 대응책에 국한	전국/시도차원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지원 가능
기초학력문제는 학생(학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귀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교, 교육청, 국가 모두의 책임
교육청 → 학교에 대한 행정적 책무성만을 요구	학교의 신장된 자율권을 토대로 성과중심 책무성 체제 구축

– 단기 대책으로('09~'10)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고, '11년부터는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장치 마련

● **어떤 과제를 추진하나**

① **기초학력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 단기 대책으로('09~'10)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고, '11년부터는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장치 마련

※ 이를 통해 학교는 미달 학생을 위한 정규수업,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우수 교장 및 교원 배치를 위해 동 학교를 교장 공모학교로 우선 지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사 초빙권(정원의 50%) 등 자율권 부여

②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기초학력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지원노력과 학업 향상도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

– 학교별로 학업성취 향상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 '11년 이후부터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향상도 등을 공개

③ **평가의 신뢰도는**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관리, 채점관리, 결과분석에 이르는 평가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책무성 보장체제

정책 대상	책임 소재	내용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교장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 평가결과 분석 → 학교 성취도 향상목표 설정 및 학생별 기초학력향상 대책 강구 •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을 위한 수업 중/방과 후/방학 중 프로그램 마련, 추가강사 배치 등 종합적 노력 • '11년부터는 성취도 평가 결과 정보 공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시·도 교육감	지역 내에서 뒤처지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책무 • 객관적 교육격차 실태조사 → 학교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우수교원 배치 등 전반적 교육력 제고방안 마련 • 학교별 학업성취 향상목표에 따른 성과평가 → 미흡한 학교 불이익 조치 등 책무성 확보장치 마련
지역(전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중앙정부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 격차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통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실태조사 → 지역 간 및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지원책 마련 •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공개 → 시·도교육청 평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반영

당부의 말씀

●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최소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는 가정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뒤처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지지와 신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교육주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노력하는 학교와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국가수준의 평가답게 관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개인의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고, 학부모가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진적 학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청와대 정책 소식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박형준**
엮은이 **이동우**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청 와 대